

電力界小史 (第三編)

前回에도 謝過한바와같이 電力界小史라하고 弱電力面을 쓰게되니 罪疎하오나 既往 내메모에 記錄되어 있기때문에 二·三頁만 더쓰겠습니다 多少 參考가 될까하오니 한번 봐주세요.

○ 無線電信의 始初

檀紀四二四三年(西紀一九一〇年)十一月一日부터 使用되었다 합니다 距今四十八年前인데 其內容은 未詳입니다.

○ 放送의 始初

放送이 公式로 始作되기는 檀紀四二六〇年(西紀一九二七年)二月十六日이라 합니다 距今三十一年前인데 眞洞에 中央放送局이 되어 十키로程度의 容量으로 始作되었다고 記憶됩니다.

○ T V 의 始初

텔레비죤의 始作은 여러분이 다- 잘記憶하실터 이다 距今二年前 即 檀紀四二八九年(西紀一九五六年)五月十五日이지요 國營의 中央放送局所管도 아니요 RCA社及 美軍에서 經營하고 있습니다.

○ 漢城電氣株式會社의 變革

(1) 韓美電氣株式會社라 改稱하다
前記한바와같이 漢城電氣株式會社는 我國電氣事業體의 元祖로 檀紀四二三一年一月十八日에 設立되었으나 其後 資金難으로 呻吟하다가 檀紀四二三七年에 美露코비치카트洲 서-부루구市 임피야아 트라스트會社로부터 融資를 受하였는데 洲法에 依하여 韓美電氣株式會社를 設立하고 漢城電氣事業一切을 繼承한同時에 本社도 卍市에 移轉하고 서울에는

事業所를 設置하게 되었다.

여기에 其事業內容까지를 쓸必要는 없지만 既往 내메모에 있기때문에 其一部로서 動力은 設고 燈은 約六千燈이요 新設一燈에 九圓 二燈에 十三圓 이 設고 料金は 十燭에 一圓六十錢, 十六燭에 二圓五十錢, 三十燭에 四圓, 五十燭에 六圓이라는 記錄을 茲에 添記하나이다.

(2) 日韓瓦斯電氣株式會社 設立됨

檀紀四二三八年頃 日人들이 權東壽氏所有의 瓦斯會社權利를 買收하는 同時에 韓美電氣株式會社도 卍春할 計劃이 推進되어 二, 三年을 卍리오면서 內容은 다-되고 形式上 創立株主總會는 檀紀四二四二年七月二十一日로서 日韓瓦斯電氣株式會社가 設立되어(事業要覽에는 認可及 開業이 六月로되어 있음) 韓美電氣株式會社를 買收하여 事業一切을 繼承하는 同時에 瓦斯事業도 開始하였다 當時 白寅基 代表取締役 金炳錫代表取締으로 活躍하였다 합니다.

檀紀四二九一, 八, 二〇

會長 尹 日 重

◎ 閑 話 客 談

(團體力の構成及其強化方案)

既往 題目을 결어놓고 되지못하나마 쓰기始作한 것이라 感覺한바는 다-써버리라고 罪殊하오나 또 繼續합니다.

萬若에 좋은原稿가 드리오면 何時든지 딱 끊어 버리겠습니다 빨리 原稿를 보내주십시오.

○ 團體力の構成

前回에 團體力은 各個人의 力量의 算術的和보다는 훨씬 幾何學的의和를 얻을수있어 이것을 有機的合力이라 感覺한다고 썼습니다.

從來 우리가 조금工夫했다고하는 運動의法則이나 力學의理論으로는 아무리 感覺하여도 納得되지아니 한다.

우리人間이 地球上에 住居하고 있는以上 力을 無視할수없다 合力과 分力 方向과 角度等에依한 力의 合成 分解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보금자리인 地球를 土台로한 古典物理學의 原則에 있을것이나 無識한者가 第一점쟁이라고 할는지모르나 反대로 無智한 者가 第一大總하게될때도 있습니다.

量子力學이나 相對性原理等은 전혀 모릅니다만 平行線이 永久히 合질理없고 二個의 힘이 合하여 三個가 된다는것을 絶對로 없다고 豪言하기는 나 는 躊躇합니다.

物理學도 모르는 門外漢이 되지못하게 物理學講義를하는 紙面도 아닙니다. 다만

『各個의力에는 方向 大小 形態, 周旋 位置 등이 있어 此等이 잘 同調되면 반드시 有機的合力의 結果를 得할수있다』고 確信하고 強調하는 바입니다.

○ 團體力強化方案

團體力の 構成要素가 前記한바와 如한故로 團體力을 強化하려면 各要素의 內容을 잘把握해야 此等을 良好同調시킴에 있다고 感覺합니다.

此를 各項에 分하여 說明하면

(1) 力의 方向

干先 各個人의 力의 方向을 干先 檢討하기로 하는데 方向이라하면 우리는 大概 同一平面內에서 東西南北이라든가 東東西, 南南北, 程度로 定하여있고 또 大概 이로서 充分하다고 할것이나 때로는 이平面을 線으로 볼때 이 線위로 向하는것과 反대로 이線아래로 向하는것도 있다.

方向々々하여도 同一平面上에서 程度程度 틀린다면 大概 同方向이라 하였지만 百八十度 正反對로 向하는 方向이라하면 問題가 되지아니한다.

이런 方向의 力은 團體力을 線化하기커녕 도로되 減殺시키는 作用을 할것이니 딱 질색할 노릇이다. 團體力의 因子가되는 各個人의 力量은 千差萬別이 겠지만 第一重要한 要素는 이 方向을 同一히 하여야 할것이다.

아무리 數가 많고 各個力이 強하다 할지라도 제각기 어느角度를 가지고 제 멋대로 움직이거나 甚至於는 正反對方向으로 뻗쳐 버린다면 其團體는 各個力이 綜合되지 못할것은 勿論이고 終乃에는 減殺되고 말것이다.

(2) 力의 大小

各個力에는 반드시 其力量의 大小가 있어 千差萬別일것입니다. (力量이라는 말自体와 大小라거나 多數라거나 強弱이라等的의 말自体가 모두 物理學的의用語로 보면 大端模糊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普通쓰는 通俗的文章에서는 適當히 判讀하여주십시오.)

用体에 대하여 奉仕하는 各個人의 力量은 其範圍가 規定되어 있어 其所定의 力量을 全部 發揮奉仕한다면 足한것입니다.

勿論 特別한 力量을 提供한다면 団体로서는 不敢請이나 固所願이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것은 団体力이라기보다도 個人의力이 特別한 形式으로 社會에 奉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故로 一、二名의 熱誠分子가 있다고 해서 其團體가 번다시 繁昌해지는 것도 아니요, 反對로 會員 全體가 所定의 義務만 꾸준히 守行한다면 其團體는 잘되여 갈것입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우리學會도 會員이 最小限의 所定義務(責任)만 지키여 주신다면 期比코 學會는 繁榮될것입니다.

(3) 力量의 形態

力量의 形態라하면 선뜻 理解하기 困難하고 또 団体力을 說明하는데 形態나 무엇이니 잔소리가 必要있는가 하겠지만 團體의合力을 잘說明하려면 그냥 되어놓고 抽象的으로 알버무려 버리기 싫기 爲문에 좀 具體的으로 說明하려합니다.

力量이라하면 두개乃至 세개의 尺度가 아니면 明瞭히 表現되지 못합니다. 即 力量은 두개乃至 세개의 尺度로 測定된 積으로 表現하는것이 가장 明瞭합니다. 이것을 나는 力量의 形態라고 의지로 命名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力量의 形態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同一積이라도 三角形, 四角形, 多角形, 矩形, 梯形, 半圓形, 等等 알파든지 있을것입니다.

이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바는 団体力을 構成하는 各個人의 力量은 (그사람이 所有한 全力量이 아니라 團體에 奉仕할 一部分의 力量) 同一量이요, 同一形이 되기를 希望하는바입니다.

個人力을(分力) 土台로한 団体力(合力)의 結果가 가장크고 가장有効한 結果를 얻으려하면 各個人의 力量이 可能한 限 同一한 量, 同一한 形態라야만 되는 것이다.

(4) 団体力의 周期

力의 方向·大小·形態가 拂奪되도 大概同一하다 할지라도 그힘을 實際로 쓰는 周期(時期)가 同一치 아니하면 其合力의 結果는 亦是 좋지못할것은 當然할것입니다.

可令 例拳하면 여기 百이라는 槓力이 有는데 其中 몇十槓力은 一分間에 數十次式 힘을 살라고 떨떡이요 其中 몇十槓力은 一分間에 겨우 一、二次나 살까 말까 망서리고 其中 몇十槓은 一分間은 站 繕하고 二分間에 한번이나 움직여 불까하고 느리게 있다고하면 이 百槓의 合力이라는것은 겨우 몇十槓의 힘에 不遜하게 될것입니다.

그럼으로 団体力은 各個人이 그 힘을 쓰는 周期(時期)를 同一히 하여야만 高度의 效果를 得할 것이며 그리함으로써 前述한 有據의인 巨大한 力量도 期待할수 有는것입니다.

아무리 多數의 會員을 가졌다 할지라도 合心 合力이 同時에 되지않고 그度數가 均一치 못하여 七槓入落되면 그團體의 힘은 하잘것 없을것이고, 비록 小數의 會員을 가진 團體라도 各會員의 힘이 同時에 集結되고 其度數가 定期的이며 均一하면 그團體力의 效果는 번다시 強하여질것 입니다.

(5) 力의 位置(位相)

力의 位置라할까 力의 位相이라는것은 自然히 注起기도 하고 또必要에 應하여 位置를 變하기도 할수 有습니다. 可令 例拳하면 槓寺百二十名이 同時에 出發할 터인데 場所, 事後整理 其他便利에 依하여 四十名式을 一團으로, 三團에 나누어 同時에 同一方式으로 出發시키는 수도 有습니다.

技術과 經濟

會員 廉 道 有

나는 經濟學者가 아니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직 못한 技術者의 한사람이 을시다. 그리면서 技術과 經濟라는 주제로 몇字 적어보고싶은 衝動을 느껴 歌章을 적어보는 바입니다.

技術이란 말이 무엇을 規定하느냐는 여러분의 잘 아시는 바이므로 새삼스리 說明을 양합니다. 다만 技術의 最後目標은 能率向上이란 課題일것입니다.

그러면 經濟란 말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經濟論에依하면 最少의 努力으로 最大의 成果를 얻는것이라 합니다. 換言하면 可能限 損失을 없애고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는 方法을 追求하는 學問이기도 합니다.

損失을 減少시켜서 所期의 目的을 達成한다는것이 技術의 能率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技術과 經濟의 共通된 理念이 여기에 있을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 社會의 通習을 봅시다.

技術은 呼曰 技術者라는 사람들만이 論議할뿐이요 甚至於是 技術者라는 사람들은 超然한 態度로서 技術만 論議할뿐이요 經濟에關한事項은 吾不關焉한 態度입니다. 經濟를 無視한 技術이란 無價値한것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수없는 形便입니다.

그래서 서떠한 社會現象이 나타나왔는지 여러분 技術者들은 若干의 考慮를 할 必要가 있을것입니다.

反面 技術者가 아닌 呼曰 經濟人들의 觀念常態을 살펴봅시다. 經濟와 技術이 全然關聯이 없는 것파같은 言辭를弄하는 現實입니다.

即 技術者는 技術만 論議할것이요 經濟問題는 오로지 우리를 經濟人만이 相當할것이라는 觀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理論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上호한 技術者의 固執과 무엇이 다를것입니까. 兩者 平같은 固執일뿐입니다.

그래서 韓國의 實情은 經濟面에 關係되는人物은 大部分이 呼曰 經濟人뿐이요, 技術者는 오직 技術에만 局限되어 擔務하고있는 實情입니다. 事業의 管理 運營等を 떠난 純技術研究試驗部分等이야 勿論 技術者만의 天職이요, 專任하여야할 部分이겠지요. 그러나 이것뿐이 우리 技術者들의 在務가않이요, 技術管理, 生産管理 亦是 技術者가 充分히 相當할수있는것이며 經濟人보다 더욱 實感있게 處理할수있을것입니다. 外國의 實情을보면 甚至於是 生産機器의 營業面에 까지 技術者가 擔務하고 있는 實態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現體裁가 理想的인것이라 말할수 있을까요. 아무리 生覺해도 이것이 先進諸外國과 다른 精異한 現象으로서 理想的이많은 體裁라 言이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先進外國에는 先進外國에는 生産企業을 運營하는 經濟人으로서 技術者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요, 또한 國家經濟에 莫大한 貢獻을 하고 있기니까요.

그러면 韓國은 무엇때문에 그러한 體裁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것일까요.

이 問題는 아직도 政治, 經濟가 安定되지 못한 過渡期에 處해있는 韓國으로서 不得已한 現實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國家百年大計를 爲하여 조금더 冷靜한 批評과 詩劃이있어야 할것은 勿論일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判斷으로서는 其過半의 原因이 技術者의 固陋한 觀念에 있음은 切實히 느끼는 바입니다.

産業經濟란 換言하면 技術經濟란 말로도 表現되는 바요 産業關係를 呼曰 經濟人에만 一柱할것이

앞이요, 技術人으로서도 勇躍起하여 우리들이 技術經濟를 解決하고자 努力하여야 할것입니다. 國家에 卒先的인 이바지를 하기爲하여

生産企業은

技術企業은

우리技術者들이 現在の 태두리를 벗어나, 좀더 積極的으로 務業. 解決하게끔 努力함이 우리技術者의 또 하나의 義務가 양인가 注意하는 바입니다.

任 員 會

日 時 4291年 7月31日(木) 下午6時
場 所 學 會 事 務 室

出席任員 尹日重, 金鍾秀, 徐錫仁, 廉道有, 石晚基.
議 案 1. 技術總協會第七回定期總會開催에 關한件.

2. 電氣工學誌編纂에 關한件.

3. 其他事項

尹會長司會下 上記議案 下의如히 討議하다.

1. 技術總協會第七回定期總會에 臨할 學會代議員米遣에 關하여 討議하다.

2. 電氣工學誌刊行에 關하여 編修理事의 刊行予算額報 告書를 審議하다

3. 建設業誌에 依한 電氣技術者免許申請에 隨件한 技術者의 經歷證明願發付件數及 七月三十日技術總協會 常在理事會議經過를 副會長이 報告하다.

其 他 報 告

1. 禮紀4291年 8月2日 下午2時 大韓商工會 議所會議室에서 大韓技術總協會第七回定期總會를 開催計上 理事 및 監事를 選出하는 同時 任員改善 結果 本學會長이 副會長으로 當選하다.

大韓技術總協會		
會 長	副 會 長	副 會 長
金 允 基	尹 日 重	崔 景 烈

2. 禮紀4291年 8月6日 서울驛驛內食堂에서 大韓技術總協會第1會(91年度) 理事會 및 監事會議을 開催計上 常任理事 및 編輯委員을 選出하다.

技術總協會理事 및 監事 編輯委員名錄

學 協 會 別	理	事	監 事	備 考
大韓電氣學會	金鍾秀, 廉道有, 徐錫仁, 李宗日, 石晚基		金柱信	編輯委員 金俊植
大韓土木學會	金容會, 李鳳寅, 金海琳, 韓仁善, 朴吉洙		元泰常	
大韓建築學會	金稱河, 慎武賊, 金亨杰, 金正秀, 李均相		李天政	
大韓機械學會	金魯洙, 林日植, 李承鎭, 鄭榮殷, 韓石鎭		姜永鈞	
大韓電氣通信學會	李載坤, 李寅規, 黃秉永, 吳鎭禕, 李範純		申魯教	
大韓化學學會	李鍾珍, 金東一, 田豐鎭, 洪貞模, 元容碩		李鍾根	
大韓紡織技術協會	全孝燮, 金汶尚, 李德基, 黃鐘憲, 元鳳集		金鶴瑞	
大韓釜山技術協會	朴秉吉, 金基德, 尹城瀾, 金鍾射, 洪集基		李柱洙	
大韓農業土木技術協會	李相賢, 趙光熙, 姜琮武		趙迎春	

大韓 風学会	○金鐘震 ○朴平柱	丁奎晚 柳元相	李載教	尹東錫
大韓 船学会	○黃雷吉 李成兩	○金在瑾 金哲秀	趙雲洛	尹常松

(註) ○印表示 技術總協會常務理事

3. 建設業誌施行에 있어 內務部長官으로 부터 本学会 副會長 金鐘秀에게 建設技術者資格審査委員으로 委囑하다.

4. 建設技術者施工考試出題 및 考試委員으로 (金鐘秀 趙載斗 申芝秀) 內務部로부터 委囑하다.

建設技術者資格考試을 下와如司 實施하다.

考試時日	考試場所	考試委員	備 要
8月8日 9日	仁川 南山國民學校	金鐘秀	
8月8日 9日	釜山 草梁國民學校	趙載斗	8月7日現地 出向 8月10日 歸京
8月8日 9日	裡里 南星女子中高等學校	申芝秀	上 全

新 規 入 會 員

吳連煥	金鐘五	宋衡山
金正暉	金成雲	徐鉉鳳
李昌華	趙聖裕	李璋永
李一洪	李善珏	李善致
朴承實	李基業	李用九
田應七	李秀雄	金元滄

張順泰	徐光壽	李相禧
林深根	崔仁寬	李濟春
李喜震	金日暉	趙英行
徐載先	崔明植	李宗玉
朴瑛圭	車玉淳	金長祚
張在麒	明道元	安道新
金基瑄	金榮坤	全長福
辛大教	金澤萬	奇相度
金明祿	金承鎬	朴九守